



돈보다 정직



“어머,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다니…….”

마트 계산대에서 착오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준 것을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다시 계산하려고 되돌아가기에는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덤으로 얻었다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마음이 찢찝하다. 아이들이 나를 본다. 남편에게 배운 ‘정직의 연습’이 생각났다. 결국 궁시렁 거리며 아이들을 끌고 다시 계산대로 향한다. ‘어휴, 남편이 나를 제대로 가르쳤네.’

우리가 결혼 할 때 남편은 박사과정에 갓 입학한 학생이었고 나는 작은 회사에 다녔다. 우리는 둘다 사회초년생이어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했던, 나름 용기 있는 젊은 부부였다.

결혼 할 때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매일 뉴스에서 들었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가를 직업 경험해야 했다. 신혼집을 남편의 연구실과 나의 직장의 중간에 구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은 집들이 너무 비쌌다. 집을 알아볼수록 희망지역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다음 지하철 역 근처로, 그 다음 지하철 역 근처로 밀려나 결국 지하철

역 7개를 지나 후미진 주택가에 자리를 잡았다.

집을 얻는 과정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한 평생 집 걱정 없이 자랐던 나로서 부모님 그늘이 얼마나 큰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빠져버리게 배웠던 시간이었다.

‘어른들이 댓글에 신발을 올리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어. 아이가 생기기 전에 바짝 모으자! ’

결혼 후 나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종잣돈을 만드느냐에 집중되었다. 남편은 연구실에서 월급을 받았고 나도 직장 3년차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 없이 몇 년 고생하면 대출금도 갚고 전세보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연스럽게 아이 계획은 무기한 연장 되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 나의 원대한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다. 댓글에 신발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것도 두 개나 한꺼번에. 첫 아기가 생긴 기쁨과 당황스러움을 추스를 겨를 없이 둘째 아이가 확인되었다. 쌍둥이를 임신 한 것이다. 남편은 두 배의 축복이라고 좋아했지만 나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출산과 육아 비용에,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지, 양립할 수 없는 주제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쌍둥이 임신은 고(高)위험군에 속한 임신이라 보통의 경우와 상당히 달랐다. 일반적으로 정상 분만은 40주 전후 이지만 쌍둥이는 38주 전후이다. 그나마 정상 분만의 확률도 50% 채 안 될 만큼 조산될 확률이 높다. 34주를 넘겨 신생아가 스스로 호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산을 하면 대부분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 합병증은 또 왜 이리 많은지… 이를 대비해서 태아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이조차 어려웠다. 다태아 가입이 되는 보험은 두 개 뿐인데 모두 첫 번째 태아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쌍둥이 중 첫 번째 아기는 정상이지만 두 번째 아기가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보험을 가입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담당 의사는 38주를 채우면 10월이지만, 대부분 그렇듯이나 또한 그 전에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임신 기간을 최대한 버텨 9월에 출산 하는 것이다. 그러면 34주를 넘기게 되며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진다. ‘아기들아 끈질기게 엄마한테 붙어 있어라. 건강하게 34주만 버티자!’

임신 기간 동안 나와 아이들의 건강에 신경 쓰였지만, 조산의 경우를 생각하니 출산 비용도 크게 신경 쓰였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에서 읽은 쌍둥이 엄마의 출산 경험담이 생각났다. “조산을 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술하고 쌍둥이 두 명 모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니 출산비용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나는 출산이 정상적으로 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재정을 준비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임신 기간을 더 힘들게 한 사건이 생겼다. 천장을 지나는 수도관이 터졌는데 집 주인과의 입장 차이가 정리 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결국 8월 초까지 집을 비워주고 친정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다음 날 내가 할게.”

남편의 말에 빛보다 빠르게 머리가 회전했다. 전입 신고기간은 이사 후 보름 안에 해야 하니 8월 중순까지다. 의사의 말대로 조산을 하지 않는다면 9월 중순에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전입신고일자와 출산 사이에 한 달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

지역구와 출산시기마다 다르지만 서울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내가 살았던 지역은 서울에서 최고로 많이 지급하는 곳인 반면 새로 이사 가는 지역은 지원금이 거의 없었다. 나는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킨다.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기존 주소를 유지하다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금으로 60

만원이나 받을 수 있었다.

“전입신고를 출산 후로 미루면 어때요? 그러면 출산장려금 6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길어야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니 크게 무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찝찝했지만 전입신고를 살짝 늦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이런 묘안을 생각해 낸 내가 기특할 정도다. 그리고 지금은 출산 비용에, 이사 비용에 특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출산이 잘못 되어 조산을 하고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난다면, 보험 적용 없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 출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르니 최대한 돈을 모아 대비해야 한다. 누가 봐도 이해하고 납득할 상황이다.

“안 돼. 그렇게 되면 위장 전입이 되는 거야.”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단칼에 반대한다. 내가 마치 범법자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나도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여자인데..

“무슨 위장전입 씩이나… 굳이 따지자면 자연 전입이죠! 그리고 요즘엔 정치인도 유명인도 다 하는 게 위장전입이잖아요. 흔한 일인데 뭘!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한 달만 미루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얘기 낳고 출산지원금도 받으면 좋잖아요. 지금 출산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조산해서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못된 게 옳은 게 되지는 않아. 정직하게 해야 해.”

“당신이 나중에 정치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지혜이고 처세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그럴싸한 이유로 설득했지만 남편은 완강했다.

“지금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 거 알아. 60만원 적은 돈 아니야.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이들의 출생을 통해 받는 거잖아. 그걸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늦추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출생을 떳떳하지 못하게 이용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의 귀한 출생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 되는 거야. 앞으로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할 거야? 무슨 선택이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텐데 제대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어? 정직에도 연습이 필요해. 크든 작든 정직하게 선택하는 연습이 되어야 우리의 성품이 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칠 수 있지. 물론 이번 일은 아이들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자. 돈보다 정직이야. 60만원이 당장은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지나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대신 내가 용돈 60만원어치 아껴 쓸게.”

‘쳇. 아껴봤자 얼마나 아낀다고… 혼자 고고한 척 하기는. 성인군자 났네. 그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누가 상이라도 준대?’

불만도 생기고 내심 아쉬운 마음에 투덜거렸지만 남편의 옳은 말에 토를 달수가 없다. 결국 남편의 주장대로 출산장려금은 포기하고 이사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 말대로 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었다. 비록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부정직한 일에 연루되지 않게 했다는 안도감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유혹을 이겼다는 작은 승리감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뿌듯함에, 스스로가 기특했다. 그리고 도덕적인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남들은 처세라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정도를 따르는 모습이 믿음직했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감사했다.

남편의 정직함 때문이었을까. 하늘이 도왔는지 의사의 예상을 넘어, 나는 38주를 꽉 채워 건강한 아이들을 정상 분만했다. 나도 건강하고 아이들 또한 건강했다. 38주 내내 걱정했던 조산도 없었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일도 없어 비용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지출했다.

그 때의 일로 나는 큰 학습을 했다. 적든 그렇지 않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생기는 돈은 탐하지 말자.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처세라고 말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들 쌍둥이의 출산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한다. 정직함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있다고.

내가 남편에게 배운 돈보다 정직을 우리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고 싶다. 물론 엄마의 위장 전입 혼혹 사건은 숫! 비밀에 부치고 말이다. 